

중학생의 회복탄력성과 학교적응성에 관한 실증적 인과관계 분석

이신숙*, 김용섭**

A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on Their School Adjustment

Shinsook LEE*, Yongseob KIM**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성을 개선시키는 함의를 도출하고,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서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력은 학교적응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중학생의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가장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감정조절력과 타인공감성 및 자아확장력은 매개변수인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충동통제력은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회적 유능성은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Keywords :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적 유능성, 학교적응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raw the implication in improving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suggest policy methods for their school adjustm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factors such as self-control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had the influence on their impulse control,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self-expansion ability on their social competence. Emotional regulation, impulse control,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self-expansion ability had

•제1저자 : 이신숙 •교신저자 : 김용섭

•투고일 : 2013. 12. 30. 심사일 : 2014. 1. 21. 게재확정일 : 2014. 2. 6.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외래교수(Lecturer, Graduate School of Policy, Chosun University)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Professor, Dept. of Administration and Welfare, Chosun University)

※ 이 논문은 이신숙의 박사논문(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부를 수정보완 하였음

the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It was also known that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competence had high influence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their self-expansion ability had the highest influence on social competence.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factors such as emotional regulation, empathy and self-expansion ability may be different in their influence on social competence. Impulse control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a degre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a degree of social support.

▶ Keywords : resilience, self-control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ocial competence, school adjustment

I. 서론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는 정보가 폭증하고, 급변함에 따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간은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빈번하게 새롭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현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변화하는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적응능력이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개인의 내·외적인 도전들로 인한 긴장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면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응능력의 성취와 증진이 중요한 발달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적 유능성을 중심으로 이들 변인과 학교적응 간의 종합적인 인과관계 구조를 가설적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 간의 인과관계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요인들이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학생들의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혔다.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회복탄력성이란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교적응성을 개선시키는 함의를 도출하고,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 패키지를 활용하고, 변수 간의 영향력의 정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프로그램패키지인 AMOS을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중학생의 회복탄력성

탄력성은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 유형이며, [1]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없애는 것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참여[2]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도록[3]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중학생에게서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로 '회복탄력성'이라고 한다.

1.1 자기조절능력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역경이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자기조절능력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먼저,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며(감정조절력), 다음으로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충동통제력),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자아존중감)이다.

첫째, 감정조절력은 회복탄력성을 이루는 요소인 자기조절능력의 기반은 자기이해지능이다. 높은 수준의 자기이해지능은 감정조절력으로 나타난다. 감정조절력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충동통제력은 단순한 충동억제력이 아니다. 충동성은 주로 계획성 없이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충동통제력은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동기가 있다. 하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 동기'와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자기 모습을 위해 노력하려는 '성장 동기'다.[4]

셋째, 자아존중감이란 기질적인 것으로 한 개인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자아상이며,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5]

1.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에서 대인지능은 사교적 지능과 관련된 다.[6] 그 핵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다. 대인지능이 높은 사람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다.

첫째, 의사소통이란 바로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근원이자 긍정적 감정의 원천이고 강한 회복탄력성의 기반이 되지만, 갈등의 인간관계는 불행 그 자체이며 부정적 감정의 원천이고 회복탄력성을 갉아 먹어 한 인간을 파멸에 몰아넣기도 한다.

둘째, 타인공감성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표정이나 목소리 톤, 몸짓이

나 자세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아채는 능력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기본적 자질이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공감에 대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감지하고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신 경험하는 인지적 과정'이라 정의 내리고 있다.[7] 우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감지해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자아확장력이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다. 자아확장력이 높은 사람은 자아 개념 속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전체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자아확장력의 본은 긍정적 정서이다. 긍정적 정서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긍정적 정서는 타인과 내가 하나 되는 느낌을 강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다.[8]

2.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은 하나의 합의된 개념이 아니며, 환경에 대한 적응의 측면, 인성 구조적인 측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 중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생태체계이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론과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고, 다양하게 정의되었다.[9]

대인관계적인 측면의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관계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조율하며,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0]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의 다양한 개념 중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초점 두고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10] 이는 중학생들이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고, 형성된 관계를 기능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유능성이란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며,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을 개방하여 상호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거나 불편함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기능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3. 학교적응성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사회의 일반적 특징이 되어버린 빠르고 다양한 변화의 압력 속에서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조절해야 변화와 더불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적응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맞추려는 노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적응을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학교적응이란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그 집단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이러한 환경에서 상호작용에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 할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성의 개념에 관해 언급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성이란 중학생 개인이 모든 학교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과 성장을 위해 자신과 학교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4.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개념정의와 기능 및 효과성이 보다 분명하게 규명되었고, [12]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다소 다른 정의와 측정방법, 개념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인간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발달과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증명해 오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개인 스스로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의사소통망 속에 속해 있음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로서 위기 시에 적응을 촉진시키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변수로 기능한다고 하였다.[12]

공식적 지지원, 가족, 친구 지지원으로 하위요인을 제시했으며,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고 사회적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가족, 친구, 교사들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생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을 하게 되는 주요 사회적지지원으로 가족, 친구, 교사 등이 있다.[13][14]

5. 선행연구 검토

5.1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발달적 과업을 성취한 정도로 정의되어질 수 있고, 좁은 의미로 정의하여 보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이나 또래관계에서의 능력과 같은 구체적인 영

역에서의 성취정도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15]

사회적 유능성을 대인관계 능력 관점에서 적응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인관계 영역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표현되고, 획득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유능성을 행동에 관련된 개념으로 보고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정한 행동방식인 사회적 기술과 구별하였다.[16]

5.2 학교적응성

학교적응은 복잡한 양상을 가진 광범위한 구성개념이라 전제하고 수업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 적절한 수업행동, 특히 방해하는 행동의 부재, 그리고 성적표로부터 판단된 학업성취의 사회적 측면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17] 학업성적, 학교출석일, 학습에 관련된 자아개념에 초점을 두고 학교적응을 개념화하였다.[18]

학교적응은 학교교육을 통해 나타난 성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학교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보고 그 사회 속에서 역동적으로 동화되어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즉 청소년기에 있어 학교적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생활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과 더불어 과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변인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학생의 성별, 연령,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자기효능감,[19] 자기통제, 자아탄력성과[20]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고, 자아 개념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 동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쳐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구조,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특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다.[21]

셋째는 우울, 불안, 강박, 과잉행동,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심리·정신적 건강이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22] 우울이나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사회적지지와 스트레스 예방 및 개발과 정신건강과[23]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지지를 높이지각할수록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는 것을 밝혔고 충분한 사회적지지를 가진 사람이 정신건강이 더 양호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후 사회적지지가 인간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요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연구대상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맞춰지면서,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와[24] 같은 개인의 내적인 변인들의 형성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도 제시되었다. 사회적지지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지지는 '한 개인의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에게 제공되어 지고, 개인이 제공받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5.4 탄력성과 학교적응성 관계

청소년의 탄력성이란 변화된 상황적 요구에 대해, 특히 좌절되고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경직되기 보다는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이 요구하는 특징적인 기능으로서 자아통제수준을 조절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25]

최근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융통적이고 탄력적인 개인의 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각됨에 따라 청소년 탄력성과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자이탄력적인 아동·청소년들은 학업에 있어 지적성취도가 높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탄력적인 청소년들의 이런 특징들은 이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더 잘 적응할 것이라는 예견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 속에서 청소년의 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학교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중학생의 지각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해 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 및 이론에 근거하여, 관련된 여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실제자료를 통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6]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사회적 유능성을 설정하고, 조절변수로는 사회적지지를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서 학교적응성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은 변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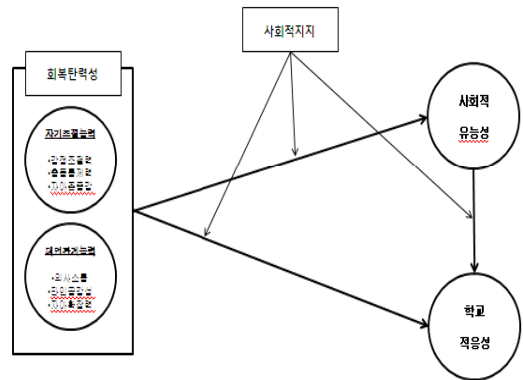


Fig.1. Research Model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사회적 유능성을 설정하고, 조절변수로는 사회적지지를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서 학교적응성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1.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학교적응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학교적응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1.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실증적 분석

1. 표본의 특성

설문지 초안 작성 후 설문지의 내용, 언어구성, 응답형식, 문항의 배열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A광역시 5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중학교의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면대면 및 현장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580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를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Table 2. Demographics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321	55.3
	여학생	259	44.7
학교 설립 유형	국립학교	455	78.4
	사립학교	125	21.6
학년	중1학년	199	34.3
	중2학년	187	32.3
	중3학년	194	33.4

구 분	빈도(명)	비율(%)	
학교 성적	60점 이하	168	29.0
	61점 이상- 70점 이하	103	17.8
	71점 이상- 80점 이하	112	19.3
	81점 이상- 90점 이하	124	21.4
	91점 이상	73	12.6
한달 용돈	2만원 미만	241	41.6
	2만원 이상-4만원 미만	223	38.4
	4만원 이상-6만원 미만	71	12.2
	6만원 이상-8만원 미만	22	3.8
	8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	1.7
	10만원 이상	13	2.2
종교	불교	50	8.6
	기독교(개신교)	198	34.1
	천주교	53	9.1
	기타종교	6	1.0
	종교 없음	273	47.1
부모 직업	농업	9	1.6
	상업	11	1.9
	공업	16	2.8
	회사원	241	41.6
	공무원	73	12.6
	전문직	61	10.5
	자영업	119	20.5
	기타	50	8.6

2. 측정도구 검증

2.1 타당도분석

요인분석 결과 자기조절능력은 총 16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 총 14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은 7개 설문항목이며, 학교적응성은 6개, 사회적지지는 9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KMO (Kaiser- Meyer-Olkin): .952, χ^2 : 22033.329, df는 1326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 값은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과 같다.

표 3. 타당성 분석결과
Table 3. Confirmatory analysis of Validity

변수명	항목수	요인 값	고유값	분산 비율	분산 누적비율
감정 조절력	v1	.808	4.335	8.337	8.337
	v2	.821			

변수명	항목수	요인 값	고유값	분산 비율	분산 누적비율
	v3	.735			
	v4	.653			
	v5	.606			
	v6	.834			
충동 통제력	v1	.635	2.685	5.164	13.501
	v2	.606			
	v3	.845			
	v4	.824			
자아 존중감	v1	.786	5.181	9.963	23.464
	v2	.831			
	v3	.845			
	v4	.757			
의사 소통	v5	.766	3.251	6.252	29.716
	v6	.743			
	v1	.663			
	v2	.713			
타인 공감성	v3	.710	3.280	6.307	36.023
	v4	.603			
	v5	.604			
	v1	.780			
자아 확장력	v2	.794	3.561	6.847	42.870
	v3	.733			
	v4	.663			
	v5	.676			
사회적 유능성	v6	.622	5.094	9.796	52.666
	v7	.724			
	v8	.605			
	v9	.635			
학교 적응성	v1	.682	3.143	6.043	58.709
	v2	.672			
	v3	.700			
	v4	.794			
사회적 지지	v5	.670	6.016	11.570	70.279
	v6	.713			
	v7	.660			
	v8	.600			
	v9	.605			
	v1	.605			
	v2	.655			
	v3	.687			
	v4	.687			
	v5	.604			
	v6	.684			
	v7	.671			
	v8	.836			
	v9	.795			
	v1	.742			
	v2	.626			
	v3	.641			
	v4	.654			
	v5	.677			
	v6	.721			

2.2 신뢰도분석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신뢰도 분석결과 자기조절 능력의 하위변수인 감정조절력 .884, 충동통제력 .824, 자아

존중감은 .950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은 의사소통.871, 타인공감성 .861, 자아확장력 .912로 제시되었다. 사회적 유능성 .916, 학교적응성 .846, 사회적 지지는 .889로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α 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신뢰도분석결과
Table 4. Confirmatory analysis of Reliability

변수명		설문 항목	Cronbah -Alpha
독립 변수	자기조절 능력	감정조절력	.884
		충동통제력	.824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950
		의사소통	.871
매개 변수	사회적 유능성	타인공감성	.861
		자아확장력	.912
종속 변수	학교적응성	.846	
조절 변수	사회적지지	.889	

3. 가설 검증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 표 5와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에서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인 감정조절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통제력은 사회적 유능성(표준화계수 .202,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성(표준화계수 .183,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에서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인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성(표준화계수 .228,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공감성은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표준화계수 .467,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학교적응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에서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인 감정조절력은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082, p값 .049)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통제력은 학교적

응성(표준화계수 .115, p값 .009)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099, p값 .033)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학교적응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에서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인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130, p값 .032)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공감성은 학교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확장력은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173, p값 .008)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섯째,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에서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346,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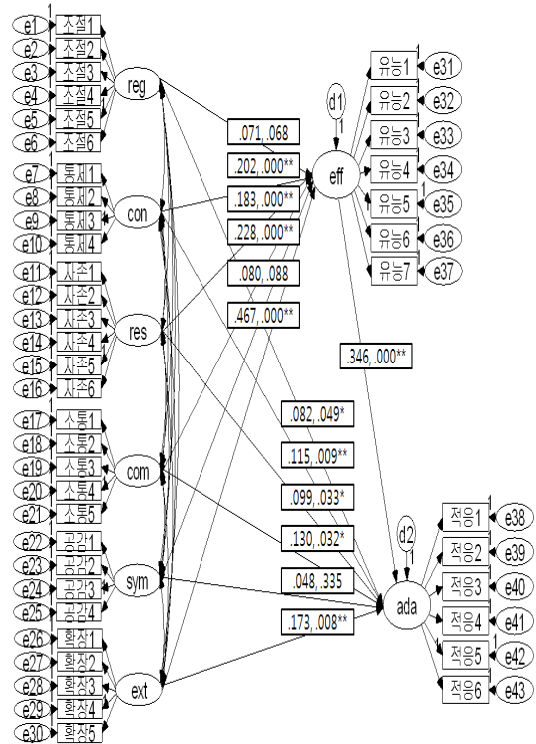
표 5. 가설검증 결과
Table 5.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가설	경로계수	C.R	p	채택 여부	
가설 1	감정조절력 → 사회적 유능성	.071	1.827	.068	기각
	충동통제력 → 사회적 유능성	.202	5.128	.000**	채택
	자아존중감 → 사회적 유능성	.183	4.266	.000**	채택
가설 2	의사소통 → 사회적 유능성	.228	4.063	.000**	채택
	타인공감성 → 사회적 유능성	.080	1.708	.088	기각
	자아확장력 → 사회적 유능성	.467	8.205	.000**	채택
가설 3	감정조절력 → 학교적응성	.082	1.970	.049*	채택
	충동통제력 → 학교적응성	.115	2.631	.009**	채택
	자아존중감 → 학교적응성	.099	2.126	.033*	채택
가설 4	의사소통 → 학교적응성	.130	2.150	.032*	채택
	타인공감성 → 학교적응성	.048	.965	.335	기각
	자아확장력 → 학교적응성	.173	2.635	.008**	채택
가설 5	사회적 유능성 → 학교적응성	.346	5.542	.000**	채택

* : p ≤ .05, ** : p ≤ .01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서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력은 학교적응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중학생의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가장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 그림 2와 같다.



1. 경로계수
2. * : p ≤ .05 ** : p ≤ .01
3. reg: 감정조절력, con: 충동통제력, res: 자아존중감, com: 의사소통, sym: 타인공감성, ext: 자아확장력, eff: 사회적 유능성, ada: 학교적응성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Fig.2. Research Model Verification Results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성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 1-1에서 5-1까지 조절효과분석을 검증한 결과 표 6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인 감정조절력은 사회적 유능성(표준화경로계수 : 높음 .034 낮음 .197)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사회적지지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7.726이며, p값은 .005로 감정조절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다. 충동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인 의사소통, 타인공감성, 자아확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사회적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조절효과분석 결과 타인공감성은 사회적 유능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회적지지이 낮은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인 충동통제력은 학교적응성(표준화경로계수 : 높음 .009, 낮음 .329)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사회적지지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10.007이며, p값은 .002로 충동통제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다.

넷째,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표준화경로계수 : 높음 .470, 낮음 .194)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사회적지지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7.816이며, p값은 .005로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다. 특히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6. 조절효과 검증 결과
Table 6. Summary of Findings in Moderating Effects

가	설	비제약모형		제약모형			차이 여부			
		경로계수		χ^2/df	$\Delta\chi^2$	p				
가설 1-1	감정조절력→ 사회적 유능성	.034	.197	3867.326 /1665	7.726 .574 .425	.005**	있음 없음 없음			
	충동통제력→ 사회적 유능성	.190	.225	3860.174 /1665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성	.228	.136	3860.025 /1665						
	의사소통→ 사회적 유능성	.191	.240	3861.447 /1665						
가설 2-1	타인공감성→ 사회적 유능성	.014	.184	3864.366 /1665	1.847 4.766 4.596	.174 .029*	없음 있음 있음			
	자아확장력→ 사회적 유능성	.350	.586	3864.196 /1665						
	감정조절력→ 학교적응성	.117	.034	3863.179 /1665				3.579 10.00 7 .186	.059 .002**	없음 있음 없음
	충동통제력→ 학교적응성	.009	.329	3869.607 /1665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성	.096	.064	3859.786 /1665							
의사소통→ 학교적응성	.141	.101	3859.626 /1665							
가설 4-1	타인공감성→ 학교적응성	.036	.025	3859.629 /1665	.026 .029 1.055	.873 .864 .304	없음 없음 없음			
	자아확장력→ 학교적응성	.082	.270	3860.655 /1665						
	사회적 유능성→ 학교적응성	.470	.194	3867.416 /1665				7.816	.005**	있음
	학교적응성									

* : $p \leq .05$, ** : $p \leq .01$

V.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본 연구는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력은 학교적응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346)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중학생의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가장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성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감정조절력과 타인공감성 및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동통제력은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중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 등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학교적응성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인 충동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동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현실적인 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것은 학교적응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중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하며, 중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방학 중에 수월성교육을 통하여 학업 우수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도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학교체육활동 활성화, 진로교육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른 차이여부는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타인공감성, 자아확장력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타인공감성, 자아확장력은 사회적지지가 낮은 중학생들에게서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습에 있어서 반복적인 학습계획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확보와 수준별 맞춤학습 등이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지지 정도의 차이로 인해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사회적지지는 교우관계와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 등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성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감정조절력과 타인공감성 및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동통제력은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Block J. H., &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3, 39-101. 1980.
- [2] Tellegen, A.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d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Major (Eds.), Anxiety and anxiety disorder. Hillsid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681-706. 1985.
- [3] Block, J., &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349-361. 1996.
- [4] Maslow, A.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3rd Edition, New York: Wiley & Sons. 115. 1998.
- [5] Savin-Williams, R. C., & Demo, D. H. Situational and transsituational determinants of adolescent self-feel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824-833. 1983.
- [6] Gardner, H.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65. 1983.
- [7] Verderber, K.S., Verderder, R.F., & Berryman-Fink, C. Inter-ac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ncepts, skills, and contexts, 11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61-169. 2007.
- [8] Waugh, C., & Fredrickson, B. Nice to know you : Positive emotions, self-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 93-106. 2006.
- [9] Raver, C. C., & Zigler, E. F.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12, pp. 363-385. 1997.
- [10] Nichols, T. R. "*Adolescent social competence: An examination of social skills, social performance, and social adjustment with urban minority youth*". Doctorial Dissertation, School of Arts and Sciences Columbia University. 95-137. 2002.
- [11] Bierman, K.L.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150-179. 1994.
- [12] Cobb, S.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1976.
- [13] Cauce, A. M., Mason, C., Gonzales, N., Hiraga, Y., & Liu, G. *Social support during adolescenc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Nestmann & Hurrelmann. (eds.).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adolescent*. New York : de Gruyter. 91. 1982.

[14] Furman, W., & Buhrmester, D. Age and sex difference in perception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1992.

[15] Masten, A. S., & Coatsworth, J. 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1998.

[16] Ford, M. E.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225-235. 1982.

[17] Berndt, T.J., & Keefe, K..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1995.

[18] Dubois, D. L., Eitel, S.K., & Felner, R. D.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1994.

[19] Mun Eun Sik. Adaptive behavior in adolescents related to the school community, the structural analysis of psychological variab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60-87. 2002.

[20] Jeong mi young · Mun Hyeok Jun. The study that is an excreta regarding school life adaptations of a child. *Paedology guild*. 28(5), 37-54. 2007.

[21] Kurder, L. A., & Sinclair, R. J. Relation of eighth graders' family structure, gender, and family environment with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1), 90-94. 1988.

[22] Estevez, E., Muzitu, G., and Herrero, J. The influence of violent behavior and victimization at school on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dolescence*, Vol, 40(157), 183-196. 2005.

[23] Cohen, S., & Wills, T. A.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1985.

[24] Forisha-Kovach, Barbara. *The Experience of Adolescence*, Scott, Foresman and Company, 300-310. 1983.

[25] Compas. Hiden & Gaerhard.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15-235. 1995.

[26] Bae byeong ryeol. Amos 19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Principles and Practices. Book publishing Cheongram. 312-350. 2011.

저 자 소 개



이신숙

2013: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현 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외래교수

관심분야 : 아동학,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e-mail : ss1114@hanmail.net



김용섭

2002: 일본 규슈대학 교육학연구과
교육학박사

현 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웹 접근성, 교육복지, 장애학,

e-mail : yskim11@chosun.ac.kr